

민생 · 재난 · 국비확보까지... 도정현안 총력 대응

전북도, 간부회의 개최... 국가예산 확보 · 여름철 재난 대비 · 행정 신뢰 강화 주문 노홍철 도지사 권한대행, 법정 선거사무의 꼼꼼한 수행 · 공직기강 확립 당부 등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노홍철 권한대행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민선 9기 출범 대비 도정 경쟁력 강화 방안과 2027년 국가예산 확보

를 위한 부처 단계 막바지 대응,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여름철 자연재난 안전대책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노 권한대행은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행정 연속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 기반의 성과 분석을 주문했다. 그는 "단순 실적 나열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실제로 체감한 변화와 미흡한 점을 객관적으로 짚고, 미래 수요에 기반한 정책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5월 말 부처 평상안 제출을 앞두고는 "실국정은 물론 출연기관장, 지역 국회의원실 등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전북 윌링' 전략과 끈질기게 부처 문을 두드리는 '노크 앤 토크(Knock & Talk)' 방식으로 2027년 국



전북도는 18일 노홍철 권한대행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민선 9기 출범 대비 도정 경쟁력 강화 방안과 202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부처 단계 막바지 대응,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여름철 자연재난 안전대책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현재 진행 중인 공모사업 대응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민생경제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도 챙겼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

해지원금 2차 지급과 관련해 "민원 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적극 운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지시했다.

/오만호 기자

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실태 집중 단속

편의점 70여곳 대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검 약사법 위반 시, 과태료 · 등록취소 등 강력 조치

전북특별자치도는 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6월 5일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안전상비의약품의 올바른 판매 질서를 확립하고 약물 오·남용 우려를 사전에 예방해 도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주요 약·타미널, 관광지, 시가지 주변 등 이용객이 많은 지역의 편의점 70여 개소다.

안전상비의약품은 비교적 가벼운 증상에 대해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해 구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24시간 운영 편의점 등에서 의사나 약사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구매 편의성이 높은 만큼 대량 구매나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

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 13개 품목으로 제한된다.

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이번 단속에서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 준수 여부 △12세 미만 아동 대상 판매 금지 여부 △판매가격 표시 여부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여부 △복약지도 및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반면 12세 미만 아동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기준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만호 기자

'전북형 근로자 종합지원시설' 건립 검토

도, 타당성 검토 · 기본구상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고 근로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북형 근로자 종합지원시설' 건립 타당성 검토와 기본구상 수립에 착수했다.

도는 18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지원시설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기순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을 비롯해 전북노동권익센터, 전주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전북개발공사, 노사발전재단 호남지사, 전북대학교, 전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 기능과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

했다. 이번 용역은 디지털 전환과 AI 산업 확산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증가하는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신규 노동수요를 포괄할 수 있는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기존 근로자종합복지관과 노동단체 지원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는 근로자 복지 기능을 재정립 취지도 담고 있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시설 건립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여건에 맞는 '전북형 근로자 지원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역은 전북연구원이 수행하며 오는 10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된다.

/오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중동 사태 대응 어업 · 수산산업 현장 점검

김종훈 경제부지사, 면세유 공급시설 ·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방문... 어업인 경영 부담 완화 ·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18일 중동 사태와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 현장을 점검하고, 새만금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행정에 나섰다.

이날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군산 비응항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과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수출가공단지 입주기업인 (주)화우당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살폈다.

먼저 김 부지사는 군산시수협 면세유 공급시설을 찾아 유류 공급 현황과 가격 동향을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중동 사태와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도에 따르면 어업용 경유 가격은 올해 3월 1당 885원에서 5월 기준 1,406원으로 상승하는 등 어업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부지사는 현장에서 "세유 가격 안정은 어업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지원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을 주문했다. 현재 해양수산부 추경은 경우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휘발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18일 군산 비응항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과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수출가공단지 입주기업인 (주)화우당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살폈다.

유와 중유 사용 여가에 대해서도 별도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어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조성 현장을 방문해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과 수출가공단지, 해수 인·배수시설, 배출수 정화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 상황을 살폈다.

새만금 수산식품단지는 총 4만 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으며,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는 스마트 가공공장과

연구개발(R&D)센터, 기업지원시설 등을 갖춘 수산식품산업 기반시설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수출가공단지에는 김 가공과 냉동·냉장 분야 등 11개 기업의 입주가 추진되고 있으며, 총 1,775억 원 규모의 투자와 451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도는 추가로 4만 평 규모의 확산 단지를 조성해 김 산업과 푸드테크를 연계한 미래형 수산식품산업 생태계

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 부지사는 수출가공단지 입주기업인 (주)화우당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수출 확대와 인력 수급, 물류 인프라 등 기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지원 필요 사항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주)화우당은 주꾸미볶음과 해물탕 등 가정간편식(HMR) 제품을 생산하는 수산식품 가공기업으로, 총 101억 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구축했으며 미국과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를 꾀하고 있다.

도는 이번 현장 점검을 계기로 어업인 경영 부담 완화와 함께 새만금을 수산식품 가공·연구·수출 기능이 집적된 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을 통해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 수산식품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새만금을 중심으로 수산식품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전북도, 산림재난 대응 역량 강화한다

올해 218억 투입... 임도 62.1km 신설 확충 · 240km 보수 정비

전북특별자치도가 산림재난의 효율적 관리와 산불·집중호우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산림의 동맥' 역할을 하는 임도 확충에 나선다.

도는 올해 총 218억 원을 투입해 산불진화임도 12km, 간선임도 33.5km, 직입임도 16.6km 등 총 62.1km의 임도를 신설하고, 구조개량 62km와 보수 178km 등 총 240km 구간에 대한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재해에 강하고 친환경적인 임도 조성을 위해 산림공학 전문가 설계 심사를 실시해 구조적 안정성을 높였으며, 우기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민간 주변과 토석류 피해 우려지역 등 임도 주변 535개소에 대한 배수로·비탈면 점검과 응급조치도 오는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오만호 기자

자본금 감소 공고

(자본금감소및 채권자이의제출공고)

유한회사 콤파스는 2026. 5. 12.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다음과 같이 자본금의 감소를 결정하였기에, 상법 제439조 및 제232조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본 자본금 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아래 기간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본감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1. 감지의 내용
 - 감자 전 자본금: 금삼억 원(₩300,000,000)
 - 감자 후 자본금: 금일천만 원(₩10,000,000)
 - 감자 방법: 1회당 액면금 10,000원의 출자좌수 29,000좌를 소각
2.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공고일 현재 당사에게 채권을 보유하신 분
3. 이의제출 기간: 2026. 5. 19. 부터 2026. 6. 20. 까지
4. 이의제출 장소
 - 본점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시완산구 풍남문4길 25-2층 (서노송동)
 - 문의처: 010-8644-2030

2026년 5월 18일
유한회사 콤파스
대표이사 안종식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